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코로나와 장마, 부동산과 주식. 만약 지금의 한국 사회를 몇 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네 개 단어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이 단어들이 함축하는 바와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코로나와 장마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큰 영역이며, 부동산과 주식은 개인의 선택과 관심이냐 조건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산은 개인위생과 방역을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코로나의 발생과 소멸은 인간이 통제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다. 장마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520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기상청을 비난하지만, 사실상 오늘날 기후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내가 살고 싶은 동네

상태에 가깝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닥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조건들을 제외하고 보면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욕망의 격전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다양한 생활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 출퇴근 등 이동이 편리한 교통 환경 등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추구하는 동시대인의 욕망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주식은 또 어떤가.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물론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테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탐욕의 리그가 안타까울 뿐이다. 적절한 노동과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 등 온전한 삶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의 삶은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영역을 놓고 보면 더 나은 돈과 환경 등 물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욕망의 결과이다. 문제는 '더 나은'이라는 상대적 비교에 그치지 않고 점차 '모든'이라는 절대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데 있다. 필

자 역시 어려울 때는 삶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거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부추긴다.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 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대단한 지름길이나 확실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발견하는 일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따위가 아무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을 꾸려 가야 한다. 삶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지루한 일상을 건너뛰고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게 가능하다고 외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목소리도 있으며 이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논리와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오히려 가장 작은 일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동네'에서 가능하다. 동네는 군 단위나 작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있다. 2020년은 문명의 전환을 이야기할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해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만 생각하더라도 삶의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가치'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앞자리에 둘 것인가하는 문제. 우리의 학습과 경험 또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펼쳐질 필요가 있다. 동네는 그러한 학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골목에서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되어 공동체를 경험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향한 욕망이 생겨날 것이다. 서로의 욕망이 모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욕망의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 가자. 17개 광역 시도가 아니라,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1000개의 동네, 아니 10000개의 동네를 만들자.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기고

시민 삶의 질 높이는 구간 경계 조정



임택
광주 동구청장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소폭 경계 조정을 단행한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몇 차례 경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역 여론이 한데 모이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다행히 4·15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2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같은 당 출신인 것도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호재는 또 있다. 집권 여당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행정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를 역설하고 있어서다. 행정 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 억제 해소와 지역 혁신 성장에 방점

을 둔다면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지역 불균형 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건은 구간 경계 조정을 단순히 어느 지역이 손해를 보고 또 이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게임'으로 바라볼 때 논의의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구간 경계 조정이 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 인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측면이다. 올해 5월 기준 광주 인구는 동구 9만 9000명, 남구 21만 7000명, 서구 30만 명, 광산 41만 명, 북구 43만 명 순이다. 5개 자치구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와 네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재정 규모에서도 동구 2614억 원, 남구 3510억 원, 서구 4481억 원, 광산 5958억 원, 북구 6646억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자치구 주민이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주민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수도 부족하다. 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행정 업무도 많아 민원인 대기 시간은 길어지기 일

쑤다. 인구가 과소해도 문제지만 과대해도 행정 서비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인구 많은 도시를 제외하고 광주 동구 주민들의 행복 지수가 호남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갈수록 커지는 지역 격차를 인위적으로라도 시정해야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 수도 이전과 한국판 뉴딜 추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발맞춰 우리 지역도 더 늦지 않게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균형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니 계수를 활용해 광주 5개 자치구 소득 균형 수준을 측정할 결과 각종 통계, 지방 행정, 지방 재정, 지역 발전 등 전 분야에서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라도 빨리 인구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역 재편으로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 '지도에 금긋기'식 재편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계 조정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자치구별 지역 개발을 통한 자력강생(自力更生) 주장도 1단계 경계 조정으로 인구 규모의 형평성을 맞추고 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동구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규모의 균형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이나 지역의 이해에 매몰돼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 게으리 한다면 후세대들이 나중에 기성세대를 질타한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터이다. 시민 모두가 동일한 편익을 누리 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 동력을 기를 때 그 도시는 미래가 기대되는 혁신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다면 현상 유지의 안온함을 넘어 분명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협의의 테이블을 마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미래 동력을 마련하는 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필자는 그 길에 광주의 미래가, 공동체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믿는다.

종교칼럼

온유(溫柔)한 자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평소에 평평한 길조차 많이 걸어 보지 못한 탓에 어쩌다 산행을 하면 쓰지 않던 근육들이 아우성친다. 더구나 함께 등반하는 사람들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려면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시큰거리고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다는 최초의 탄성은 잃고, 주위의 경관을 돌아볼 새도 없이 점점 멀어져 가는 동료의 뒷모습을 따라잡기에 급급해진다. 저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 주던 동료들 속에 합류하여 땀이라도 한번 닦을 참이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벗어 놓은 배낭을 짊어지기 시작한다. 삶은 언제나 그렇게 급급하고 혁혁거리게 만든다. 여름 휴가철이지만 세계적으로 번진 초유의 코로나 감염병과 더불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생활 터전이 침수되고 아산이 붕괴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로 오염하는 이들의 눈물이 가슴을 아뜨게 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잃은 상실과 불안증으로 쌓였던 관계가 갈수록 확산되고 인격의 균형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람의 인격인 지(知), 정(情), 의(意)를 신체에 비유하여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세 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머리형은 매사에 생각하는 에너지가 강하여 냉철한 이성으로 사물을 판단하므로 지성이 발달된다. 반면 생각 에너지가 너무 과다하면 모든 사물을 의심하게 되고 선택 장애를 겪거나 현실을 이탈하여 지나치게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가슴형은 풍부한 감성으로 타인의 기쁨을 함께 즐겨워하고, 이웃의 슬픔도 나누며 위로와 섬김을 거쳐 베풀며 스스로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감정적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심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장형은 의지력이 강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목표를 성취하며 자기관리를 잘하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하고 매사에 불만과 고집스러운 감정의 에너지

에 적약당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일상 속에 전염병과 자연재해처럼 불균형한 에너지가 갑자기 찾아와 인격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인격의 성벽은 마음의 균형을 지켜내는 훌륭한 방패가 된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온유한 성품은 마냥 사람 좋은 사람,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또는 힘 있는 대상을 향하여 가식을 떨거나 비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온유'는 헬라어 어원으로 '프라오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야생마가 길 들여진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다. 야생마가 평원을 질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 야생마가 아무리 힘이 좋더라도 그 상태로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조정을 받을 때 비로소 명마가 되는 것이다. 즉,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이 다스려질 때 비로소 '온유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온유는 외면의 폭발적 에너지를 통제하는 내면의 강한 에너지로, 염려와 불안 의심스러운 생각 에너지를 멈추게 하고, 상제반은 감정을 치유하며, 고집과 분노를 눈 녹듯 녹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온유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하며 자기 힘이 마음대로 분출되지

않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필터링(통제)되어야 한다고 교훈한다. 이웃에게 온유를 발휘하려면 직접 반응하지 않고 필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터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반응하면 어느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 길 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처럼 거역하고 포악한 성질이 서로를 파괴하고 침몰되어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 마음이 통제받는다 것이다. 신께 먼저 반응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먼저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게 될 것이라."(마11:29) 이 전환의 시대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균형적인 인격과 마음의 평정을 갖는 것은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외부의 환경이나 남이 만들어 주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온유한 인격의 산행을 두려움 없이 나설 때만이 이 어려운 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광주기상청 잦은 오보 무엇 때문인가

광주지방기상청의 오보(誤報)가 곡성과 구례 등 광주·전남 지역의 수해를 키웠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영산강홍수통제소가 기상청 예보를 믿고 있다가 뒤늦게 섬진강댐 방류량을 늘린 것이 구례 지역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기상청에 전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 기간 기상청의 잦은 오보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만큼 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에 512.1mm의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일과 8일 이들 동안 오보를 계속했다. 7일 새벽에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가 177.2mm의 비가 쏟아지자 8일 오후에 강우량 전망치를 올렸는데 또다시 오보가 됐다. 호우주의보 발령도 마찬가지였다. 7일 새벽 4시에 광주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해제했다가 다음 날 오전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호우주의보를

내려 "예보가 아니라 중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보에 대해 강수 집중구역이 당초 예상보다 100km 가량 남쪽으로 형성되는 바람에 광주·전남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오보는 비단 광주지방기상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상청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다. 물론 잦은 이상 기후로 인해 정확한 예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리 기상청을 믿지 못하고 노르웨이나 미국 등 외국 기상청을 통해 동네 날씨를 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노르웨이 기상청 홈페이지가 한국인 접속자들로 인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오죽했으면 '날씨 망명족'이란 말까지 나왔을까. 기상청은 이번 기회에 수치 예보 모델 등 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다시는 날씨 오보로 인해 자연 재난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차 의료 파업' 진료 공백만은 없어야

의료계 총파업에 광주·전남 시도 의사회까지 가세할 예정이어서 일부 지역에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에는 광주 지역 전공의 600여 명과 의대생 및 광주·전남 시도 의사회 소속의 사들도 가세한다. 광주 동네 병원의 경우 955곳 중 24%인 233곳이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전남은 1136개 병원 중 30%가량이 병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는 각 병원이나 의사 자율로 결정되며 일단 종합병원·중급병원·요양병원 등은 파업 참여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투석실·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 인력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화와 타협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 박승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 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사협회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상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의 모세혈관이나 다름없는 동네 병원들이 문을 닫을 경우 진료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 집단 휴진은 1136개 병원 중 30%가량이 병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곡성·구례 지역 등의 이재민이 진료 공백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자와 노약자들이 많은 전남은 이들이 '진료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구례 지역이 물에 잠긴 다음 날 아침,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소떼가 지방 위로 올라갔네요." 사진을 전송받아 보니 평소 볼 수 없던 색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폭우를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한 소들이 지붕 위에서 서성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구례에서는 소 10여 마리가 해발 531m 높이의 오산 사성암에까지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는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다. 논밭을 가는 것은 물론 무거운 짐을 운송해 지금의 경운기와 트랙터 역할을 도맡아했던 상일꾼이었다. 그래서 농촌에서 게

서 이에 관련된 용어도 많이 사용한다. 글레·멍에·고배·워낭이나 한자 성어 우보천리(牛步千里) 등이 그것이다. 신문을 봐도 '소값 폭락 고배가 없다' '한우의 눈물...밥줄 끊는 법이 어디 있소?' '우우(牛牛) 광우병 사태 정부가 책임 재!' 등의 제목이 등장한다. 이번 지붕 위 소떼 기사 관련 제목은 '살려주 소였다' 건물 지붕에 올라갔던 소 28마리는 다행히 구조됐다는 소식이다. 이중 암소 한 마리는 이튿날 새벽 쌍둥이를 출산하는 기적 을 낳아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례 지역에서 총 40여 마리의 소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수해 때 축사 문을 열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만 제때 열어주었다면 동물적 감각으로 수해를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소는 귀뿔을 달아 모든 정보를 전신 관리하고 있어 바로 주인을 찾을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안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재해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재난 시 기속도 함께 살리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1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